

홍미진진 공주

2026.08

Vol. 377



흥미진진 독자 솜씨 자랑

독자 여러분이 정성껏 색칠한 공주 여행지 정안전을 소개합니다.

※ 보내주신 색칠 사진과 이야기는 편집을 거쳐 재구성했습니다.



독자 박*빈 서울시

회색빛 서울 빌딩 숲을 벗어나 온통 초록으로 가득한 공주 메타세콰이아길을 추천합니다. 높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 터널을 걷다 보면 한여름의 더위도 금세 잊힙니다. 바로 옆 연못의 연꽃 풍경까지 더해져, 가만히 걷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여름 힐링을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독자 최*미 공주시

공주시 의당면의 메타세콰이아길은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 명소입니다. 울창하게 늘어선 메타세콰이아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름에는 메타세콰이아길을 따라 보랏빛 맥문동이 피어나, 무더운 여름을 잊고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공주 여행지입니다.



독자 이*원 공주시

저는 공산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백제 시대의 성을 직접 보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아름다운 금강 풍경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채*준 용인시

딸아이와 이번 여름 방문해 보고 싶은 공주 여행지에 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시원한 동학사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싶고 유구에 있는 색동수국정원에서 수국꽃 길도 걸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7월호 정답지

Q. 다음 중 '고진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곧이곧대로 사는 사람

Q. 다음 중 '복새'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노을

※ 응모해 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답자 명단

김*희(공주시) 이*현(광주시)
류*상(공주시) 전*현(성남시)
유*자(공주시) 권*근(수원시)
이*수(대전시) 김*남(대전시)
권*향(안산시) 권*환(대구시)

CONTENTS

2026 AUGUST Vol. 377



● 공주를 4 TRACK 01 공주 핫이슈1 공주산림휴양마을 8 TRACK 01 공주 핫이슈2 광복, 그날의 자유를 춤추다 10 TRACK 02 공주 핫스팟1 제2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 12 TRACK 02 공주 핫스팟2 1967 호서극장 개관 14 TRACK 03 공주 코믹스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18화 '생각해 보면 꿈결 같아라'	● 공주답게 16 공주 그래피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나태주, '꽃들이 안녕' 18 공주 지킴이 40년을 이어온 빛나는 믿음 광신농약사 최치흠 대표 20 제철 레시피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여름 별미 복숭아 원소병	● 소중히 22 공주 알림 24 시민 기자 26 의회 소식	● 기록합니다 30 조선, 그림을 읽다 포도도 葡萄圖 32 공주도래미(道來味) 프렌치 디저트 카페 셰마롱 33 기부소식 34 문화 캘린더 이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35 공주말 학력고사 & 이달의 색칠 공주 36 제2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 포스터
--	---	---	--

발행일 2026년 8월 1일
 발행인 공주시장
 발행처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향로 1
 편집위원 윤용혁 황교수 유환권 양진모
 제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흥미진진 공주 통권 377호 공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층, 비문해자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점자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누리집 www.gongju.go.kr에서 e-book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 공주' 구독 신청이나 취소, 주소 변경 및 지인 구독 추천에 대한 문의는 홍보미디어실(041-840-84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정 문의 1899-0088 | 041-840-3800

숲이 주는 선물 같은 여름 ‘공주산림휴양마을’

여름의 숲은 유난히 눈부시다. 선명한 초록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흙과 풀 내음은 마음을 포근히 다독여 준다.
잠시 걸음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계절이 주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
올여름, 공주의 숲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걸으며
나를 돌아보는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자.



청정 자연에서 머무는 하루

공주산림휴양마을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울창한 숲의 고요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관을 갖춘 산림휴양마을에서는 계절마다 숲의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는 15개동 20개의 숙박시설과 20개의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의 인원수에 맞는 숙박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은 물론 자연 속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휴양마을의 시설을
둘러볼 수 있어요

주소: 수원지공원길 222
운영시간: 연중무휴
프로그램: 숲해설, 유아숲교육
문의: 041-855-0855



오감이 깨어나는 특별한 여름밤 주미산 달빛걷기



주미산 달빛걷기는 시원한 저녁 숲길을 걸으며 여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계피로 목걸이를 만들고, 청동 종을 닦은 싱잉볼의 깊은 울림과 함께하는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며 숲이 선사하는 편안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달빛과 숲, 그리고 자연을 벗 삼는 특별한 여름밤. 주미산 달빛걷기에서 자연이 건네는 위로와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자.

운영장소: 주미산헬스투어센터

운영기간: 2026년 8월, 매주 금요일 19:30 ~ 21:00

참가인원: 5~10명(사전예약)

걷기코스: 금학생태공원 수원지둘레길

문의: 010-9698-3400

※ 우천 시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자연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주미산 헬스투어 프로그램



건강은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다. 공주시가 운영하는 '주미산 헬스투어' 프로그램은 주미산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이다.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이끼와 같은 작은 숲의 생태를 관찰하다 보면 자연과 동화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헬스투어센터의 건강측정 장비를 활용해 건강상태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걷고, 바람과 마주하며 만드는 나만의 시간. 공주 주미산 숲에서 몸과 마음을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채워보자.

운영장소: 주미산헬스투어센터

운영기간: 매주 월~일 오전, 오후(프로그램별 상이)

참가인원: 회차당 5명~30명(세부 협의)

프로그램: 봉체조, 맨발걷기, 이끼·생태체험, 컬링 게임, 명상프로그램 등(무료)

사전예약 및 문의: 010-9698-3400, 010-3464-9433

※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우천 시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한 쉼터 공주치유의숲

공주치유의숲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이곳에서는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어싱 체험, 숲의 소리와 촉감, 색깔, 맛을 느끼며 오감을 깨우는 오감테라피, 싱잉볼의 울림과 진동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명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숲속 해먹에 몸을 맡기고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까지 더해진다. 공주치유의숲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몸과 마음에 여유를 채우는 특별한 여름을 만끽해 보자.

주소: 수원지공원길 13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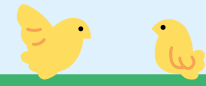
프로그램: 황토어싱, 오감테라피, 싱잉볼, 해먹 명상

운영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소요시간 약 2시간)

참가인원: 5~15명 내외

참가비: 무료

예약 및 문의: 010-9574-8200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토피·천식·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가족



환경교육을 받고 싶은
학교·기관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우고 싶은 누구나



숲에서
힐링하고 싶은 누구나

자연 속에서 배우는 건강한 생활 공주환경성건강센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알레르기 비염 같은 환경성 질환을 겪는 어린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환경성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환경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주시는 이러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공주환경성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영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운영하며 생활 속 환경 관리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환경성 질환 예방 인형극과 마음공감 미술프로그램, 자연 속 환경성 질환 치유교실을 비롯해 임산부 숲속 힐링, 어르신 생태환경 교실 등 세대별 맞춤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도 공주환경성건강센터의 특징이다. 아쿠아테라피 가족탕은 환경성 질환으로 일반 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족이 함께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 속 족욕과 건강산책, 숲 체험과 명상, 건강교육을 결합한 단체 힐링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에는 교육실과 대강당, 건강측정실을 비롯해 가족탕과 족욕실, 힐링채 등 교육과 체험, 휴식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자연 속에서 배우고 쉬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프로그램 안내
바로가기



시설 안내
바로가기

주소: 수원지공원길 131-21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일요일·공휴일 휴관)

☎ 문의: 041-840-8560





오시는길



공주의 역사에서 찾은 감동

광복, 그날의 자유를 춤추다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연습실에는 안무를 맞추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쉽 없이 이어진다. 광복의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며 시민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특별한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레그너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광복의 이야기

‘광복, 그날의 자유를 춤추다’는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가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호국의 역사와 나라 사랑의 가치를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과 영상 콘텐츠로 풀어내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선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 동아리 ‘레그너’, ‘비너스’, ‘두둥~탁!’은 지난

5월부터 광복과 보훈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 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안무와 공연을 준비해 왔다. 공주시 곳곳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과 호국의 발자취를 직접 찾아보고, 공간마다 담긴 의미를 몸짓으로 표현하기 위해 안무를 구상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주시는 이번 기획 공연의 중요한 배움터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지역의 역사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독립의 의미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관심과 응원은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됐다. 역사적 공간에서 배우고 이를 공연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협력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 가지 색깔로 완성하는 공연

현재 청소년들은 안무 구성을 마치고 촬영과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참여 동아리들은 각 장면에 어떤 의미를 담을지, 광복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의견을 나누며 무대를 완성해 가고 있다.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댄스동아리 '레그너'는 광복의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한다. 당시 상황과 기쁨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안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준비하고 있다.

공주여자중학교 댄스동아리 '비너스'는 가장 밝게 빛나는 행성인 금성처럼 자유를 되찾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표현하며 무대 위에서 빛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난타동아리 '두둥~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힘찬 북소리에 담아 관객들에게 전한다.



비너스

이들의 공연은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독립투사와의 동행'을 시작으로 공주국가유산야행, 공주시청소년한마음축제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공연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표현한 보훈의 메시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안에서 그 의미를 더욱 넓게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늘의 자유를 함께 기억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광복과 보훈의 가치를 교과서 속 역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배우고 표현한 공연과 영상은 시민들에게도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하며,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는 지역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 자유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다. 청소년들이 몸짓과 음악으로 전하는 '광복, 그날의 자유를 춤추다'는 그날의 감동을 오늘의 자유로 이어주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두둥~탁!

공연 안내

제목 : 제2회 독립투사와의 동행

일시 : 2026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30분

장소 : 산성시장

금강이 가장 시원해지는 시간!

제2회 공주야^야맥주축제

일시 8월 14일(금)~16일(일)

지난해 첫선을 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공주야(夜)밤 맥주축제'가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다. 더위를 날려줄 톡 쏘는 시원한 맥주 한잔과 흥겨운 음악에 공주에서 맛볼 수 있는 지역 전통주와 먹거리를 더했다. 낮보다 뜨거운 밤, 다시 한번 펼쳐질 낭만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밤하늘을 수놓을 3일간의 무대

3일간 이어질 축제의 개막식은 8월 14일(금) 저녁 7시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고 맥주축제에 몰입할 수 있는 공연이 다양하게 이어져 볼거리를 더한다.

개막식 퍼포먼스에 이어 금강을 배경으로 '전국 재즈 탭댄스 경연대회'가 14일과 15일 열려 매일 새로운 참가팀의 무대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지막날 16일에는 경연대회 시상식과 탭댄스 경연 수상자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저녁 8시 30분에는 매일 색다른 분위기의 공연이 펼쳐진다. 14일(금)에는 열정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15일(토)에는 특별한 여름밤을 선사해줄 로맨틱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16일(일)에는 대미를 장식할 신나고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맥주축제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입맛을 사로잡을 공주의 미식

맥주축제의 주인공은 맥주다. 주류판매존은 축제 기간 매일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공주 지역 양조장이 정성껏 빚어낸 수제 맥주와 공주의 특산물로 담근 알밤 막걸리 등 공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술과 전국 유명 수제 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어 애주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술 옆에는 좋은 안주가 제격이다. 공주 지역 음식점과 푸드트럭에서는 바삭하게 튀겨낸 맥주의 단짝 치킨부터 아이들을 위한 분식류, 그리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류까지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 색다른 미식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맥주와 전통주류와의 페어링을 고려해 선별된 음식은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다시 살려주고 공주 여름밤만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한 잔에 쌓이는 즐거움, 한 장에 기록되는 추억

맥주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맥주 체험존에서는 맥주잔 쌓기, 맥주 빨리 마시기, 나만의 맥주 만들기,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단순히 맥주를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고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로 기대를 모은다.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을 갖춘 물놀이존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는 가족, 연인, 친구와 특별한 순간을 남길 수 있는 인생샷 포토존을 설치하고, 촬영한 사진을 즉석 인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또한 금강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축제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

방문객의 의견으로 한 뼘 더 성장한 축제

작년 축제에서 접수된 방문객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전통주와 공주밤을 활용한 수제 맥주 등 주류를 다양화했고 지역 상권 판매 음식을 확대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피크닉존을 없애고 객석과 테이블 수를 늘렸다. 또한, 화장실 위생 관리와 주차장 동선처럼 걸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방문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손봤다. 방문객의 목소리로 완성해 가는 축제, 올여름 한층 더 알차진 '공주야(夜)밤 맥주축제'에서 특별한 여름밤을 만끽해 보자.

프로그램

불거리

전국 재즈 탭댄스 경연대회 8. 14.(금)~ 8. 16.(일) 19:00~20:00

김장훈, 윤도현 밴드 8. 14.(금) 20:30~22:00

이재훈(쿨), 멜로망스 8. 15.(토) 20:30~22:00

DJ DOC, 10cm 8. 16.(일) 20:30~22:00

먹거리와 즐길거리

주류판매존 & 푸드 페어링존 & 푸드트럭

물놀이존 & 맥주 체험존 & 포토존 운영

운영시간 18:00~22:00



공주야밤 맥주축제
바로가기

문의: 관광과 ☎ 041-840-8405





다시 뛰는 공주의 심장, 호서극장의 새로운 출발

1967 호서극장 개관

역사의 도시 공주에 오랜 시간의 흔적을 품은 특별한 공간이 한 곳 더 늘어났다. 한때 시민들의 웃음과 눈물이 머물던 곳, 이제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1967 호서극장'이다.

1967 호서극장

주소: 감영길 21

문의: 041-854-5006

운영시간: 12:00 ~ 21:00(매주 월요일 휴관)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다음 날 휴관

홈페이지: <https://www.1967hs.org>

미디어아트 전시(상시상영)

- 인트로, 기억의 파동
- 제민천의 추억,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공주
- 메모리얼 호서, 금강의 물결
- 동학사 감사 가는 길

문화로 피어난 시간을 품은 극장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호서극장은 영화와 공연을 즐기며 일상의 위로를 얻던 문화생활의 중심지였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영화를 보고, 공연을 관람하며 저마다의 추억을 쌓았다.

호서극장의 시작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서화물자동차조합이 공주읍공관을 인수해 명칭을 변경하며 문을 열었고, 이후 1967년 대대적인 개축 공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호서극장의 모습 역시 바로 이 시기의 모습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정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는 등 시대적 변화로 극장 운영은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호서극장은 결국 문을 닫았다.

멈춰 있던 공간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공주시가 '1967 호서극장 조성 사업'을 통해 옛 극장의 의미를 되살리고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되살리고자 시설명을 '1967 호서극장'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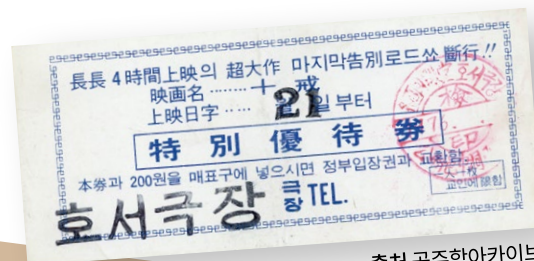
복원과정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건물의 상징이었던 전면부의 둥근 원형 형태는 구조 보강을 거쳐 그대로 살렸고, 철거가 불가피했던 후면부는 철거 후 개축하는 방식으로 완성했다. 과거의 모습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

미디어아트가 선사하는 추억과 감동

'1967 호서극장'은 7월 8일 개관을 알리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층 복합문화공간 호서캔버스에는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LED 월이 설치되어 있다. 압도적 스케일의 LED월은 선명한 영상과 역동적인 연출을 통해 과거 극장의 감동을 오늘날의 미디어아트로 다시 표현한다. 2층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따뜻한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시민 소통 공간과 디오라마 전시, 그리고 3가지 테마로 구성된 빈티지 공간은 1960년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대형 유리창으로 마감된 복합문화공간 연결부에서는 내부 공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개방감과 함께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또 건물 곳곳에 마련된 아카이브 자료들은 호서극장이 활발히 운영되던 시절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3층은 더욱 특별하다. 과거 극장 운영 당시 영사실로 사용됐던 공간을 복원해 영사기사의 작업 공간을 재현했다. 이제는 제민천 일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함께하며, 조용히 머물며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숨은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이 머물던 공간은 특별한 설렘을 안겨준다. 오래된 건물 안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추억과 마주하거나 아직 만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게 된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래된 공간이 새로운 문화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출처 공주학아카이브



1965년 호서극장 앞에서
공주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출처 공주학아카이브





무령왕의 62년 생애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 제4장_무령의 꿈 18화 ‘생각해 보면 꿈결 같아라’

만화:최 현 정/ 대본 자료:무령왕국제네트워크

무령왕릉이 발굴된 후 백제문화권 개발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0년에는 세계대백제전 개막식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삼국시대 백제왕궁을 재현한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준공식이 열렸어.



이후 공주는 부여, 익산과 함께 ‘고도’로 지정되며 201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백제역사유적 지구’가 등재되는 영광을 얻었다.

공주

부여

익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무령왕이 태어난 일본의 가가라시마(사가현 가라츠시)에서는 2002년 무령왕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가 시작되었지.



무령왕
탄생 축제

공주와 일본 가라츠의 시민들이 어우러져 무령왕 탄생제와 백제문화제를 교대로 참가하는 교류를 20여년 간 지속하고 있어.



무령왕 별

공주별

무령왕 노래

武家王生誕祭

にり 무세마~

“무령왕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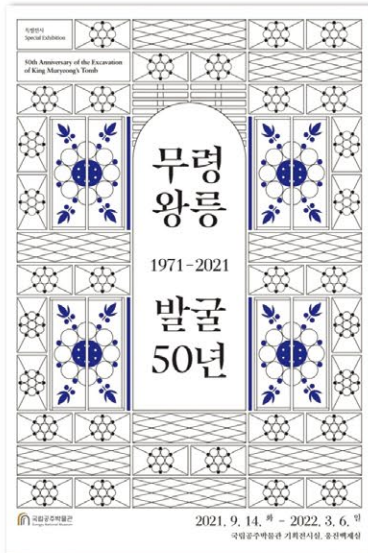
흥미있는 것은 이 교류를 통해 ‘무령왕’이라는 이름의 별이 탄생되었고, ‘무령왕 노래’, ‘무령왕 연꽃’, ‘무령왕 시’ 등 무령왕 콘텐츠라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거든.

무령왕 연꽃
(무령왕 왕릉원 연지)

왕릉 발굴 50주년, ‘갯위강국’ 선언 1500주년이었던 2021년을 ‘무령왕의 해’로 선포하고, 1년동안 무령왕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어.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왕릉에서 나온 5,232점의 모든 유물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였지.



2021년 9월 18일,
공산성 앞 로터리에
무령왕 동상이 건립된 것을
기억하니?

초아르르~

무령왕 동상의
너울이 벗겨지는 순간,
그 감동은
절대 잊을 수 없지.



‘백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백가제해(百家濟海)’,
‘여러 나라가 바다를 건너
함께 교류하고 소통한다’는
뜻이란다.



아항~

한중일 삼국을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한 것은 백제와 무령왕의 역사적 공헌이야.

이것은 대륙의 중국,
해양의 일본이 한반도를 고리로 하여
서로 우호적으로 협력하며
번영하는 비전을 일찍이
보여준 것이지.



와아~



백년 전까지
‘행정 중심 도시’였던 공주는
‘교육도시’를 거쳐
지금은 ‘역사 도시’가 되었지.
공주는 ‘무령왕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공심
뽀뽀



금년 2026년은
무령왕비가 돌아가신지 꼭 1500년!
왕릉에서 나온 왕비의 지석에
그렇게 쓰여있단다.

그리고 보니,
무령왕께서 그동안 왕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2026년
무령왕비 서거
1500주기

바잉!

2025년 3월부터 연재해온 <사마의 바람, 무령의 꿈>은 제18화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꽃들아 안녕’

-나태주-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들아 안녕!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그렇게 인사함이
백번 읊다.

무령왕릉에 피어난 2,000년 전 연꽃, ‘무령왕 연꽃’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핀 연꽃은 일본 치바시에서 분양받은
2,000년 전의 연꽃 ‘오가하스 연꽃’이다.

2018년 공주시는 이 연꽃을 정식으로 분양받아,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간 관리해 착근시켜 개화에 성공했다.

이후 연꽃은 무령왕릉 경내 백제 연못으로 옮겨 심어졌는데,
이때 ‘무령왕 연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40년을 이어온 빛나는 믿음 광신농약사 최치흠 대표



‘광신(光信)’농약사는 상점을 처음 열어 아버지가
‘신용을 지키는 가게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아 지은 상호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최치흠 대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게를 이어받았다.
그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성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지키며 신뢰를 쌓고, 지역 농민들의 든든한 벗이 됐다.

광신농약사

산성시장5길 75-34

☎ 041-855-2850



아버지의 가게에서 시작된 40년

부지런한 농부의 하루는 여름철이 되면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더욱 일찍 시작된다. 그럴 때면 광신농약사의 아침도 덩달아 빨라진다. 오전 6시, 최치흠 대표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상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녹색과 분홍색으로 나뉘어 보기 좋게 정돈된 판매대에는 오랜 시간 쌓인 노하우와 숨씨가 묻어난다. 여기에 40년을 한결같이 함께 가게를 지켜온 아내의 깔끔한 성격도 한몫한다. 최 대표가 상품을 정리하는 동안 아내 역시 가게 앞 시장 골목을 깨끗이 쓸고, 행어 먼지가 앉을 세라 진열장을 닦고 또 닦는다.

최 대표는 공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공주고등학교를 거쳐 대전공업전문대학 기계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 아버지가 운영하던 광신농약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한번 맡아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든 뒤부터는 농약 관련 서적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농약사를 운영하려면 판매자격증이 필요했어요. 저는 농업 전공자가 아니어서 응시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에서 실무경력을 쌓으며 자격 요건을 갖췄고, 꾸준히 준비한 끝에 판매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986년부터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다가 10년 전에 지금 이 자리로 확장해서 이전했습니다.”

단골손님과 함께 꾸려온 가게

농약사라고해서 농약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종자와 모종,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취급한다. 지금의 매장으로 확장 이전하기 전에도 같은 산성시장 안에 있었으니, 40년 동안 한결같이 시장 골목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가게를 찾는 이들 대부분이 단골손님이다.

“처음에는 손님 대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간혹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농약을 잘못 사용해서 약해(약물에 의해 작물에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자 가게에 와서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다가도 ‘여기 최 사장한테 농약을 샀더니 해충이 뚝 떨어졌어’라고 이야기해주는 단골손님의 한마디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쁠 때는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는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손님들을 위해 최 대표가 지키는 원칙이 있다. 이윤이 적더라도 효과가 검증된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 여기에는 농약을 사서 사용한 농민들의 후기도 반영되어 있다. 단골손님들이 ‘이번 제품이 잘 들었다’든지, 혹은 ‘어떤 제품은 영 별로였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주면 이를 꼭 반영하여 제품을 고르는 데 신중을 기한다. 어쩌면 광신농약사의 오늘은 더 좋은 농약을 제공하고 싶다는 최 대표의 고민과 직접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경험이 함께 만들어낸 모습은 아닐까.

농민들의 든든한 조력자

최치흠 대표는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원형간판을 만들때 가게 이름 앞에 ‘계속 가자 쪽~’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2대째 이어온 가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세 딸 중 막내딸이 후계자가 되어 가업을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넉넉히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광신농약사가 3대째 가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제가 운영하는 동안은 지난 40년간 그러했듯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신용을 지키자’라는 뜻인 담긴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농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여름 별미

코리안 버블티 복숭아 원소빙

여름 하면 시원한 음료를 빼놓을 수 없다. 탄산음료도 좋지만,
제철 과일 복숭아를 활용해 ‘복숭아 원소빙’을 만들어 먹는 건 어떨까.
원소빙은 찹쌀 경단을 곱게 빻아 꿀물이나 오미자국에 띄워 먹는 전통 음료 중 한 가지다.
알록달록한 경단이 맑은 꿀물 위에 동동 뜬 모습은 그 자체로 눈을 즐겁게 하고,
향긋한 복숭아 향과 달콤함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화려한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요즘,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여름 별미 한 그릇으로 더위를 식혀보자.



재료 및 분량

복숭아 2~3개

찹쌀가루 200g

소금 2g

설탕 2g

전분 100g

꿀 네 큰술

‘제철 레시피’는 요리연구가
김정미 선생님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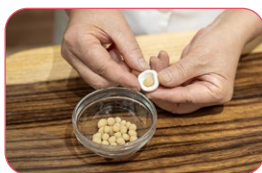
깨끗이 씻은 복숭아를 껍질째 강판에 곱게 간 뒤 냄비에 넣고 끓인다. 끓인 복숭아즙은 면포에 걸러 맑게 만든 후, 냉장고에 넣어 충분히 식힌다.

2



찹쌀가루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끓는 물을 국자로 조금씩 부어가며 익반죽한다. 반죽은 눈사람을 만들듯 굴린 후 지점토처럼 탄력이 생길 때까지 치댄다.

3



밤을 삶거나 찌서 껍질을 벗기고 뜨거울 때 곱게 으갠다. 기호에 따라 설탕과 소금을 조금씩 넣어 간을 맞춘 뒤, 팔알만 한 크기로 동그랗게 빚어 경단 속에 넣을 소를 만든다. 익반죽을 동그랗게 편 뒤 가운데 소를 넣고 완전히 감싸 동그란 경단 모양으로 빚는다.

4



지름 2cm 정도 크기로 빚은 경단에 전분 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넣고 위로 떠오를 때까지 삶는다. 삶아진 경단은 바로 건져 얼음물에 담가 식힌다.

5



식혀둔 복숭아 물에 꿀을 넣어 입맛에 맞게 농도를 맞춘 후 경단을 띄운다. 여기에 복숭아를 잘라 모양을 낸 후 고명으로 올려 낸다.

Tip ①

여러빛깔의 경단을 만드는 법!

반죽을 할 때 치자물, 쑥가루, 백년초가루를 각 각 넣으면 노란색, 초록색, 붉은색의 고운 경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색색으로 빚은 반죽을 사용하면 화사하고 보기 좋은 원소병을 연출할 수 있다.

Tip ②

삶기 전에 전분 가루 묻히기!

경단에 전분을 묻혀 삶으면 반죽이 쉽게 풀어 지지 않는다. 또 표면에 은은한 윤기가 더해지고, 한층 쫄득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Tip ③

복숭아 통조림 활용하기!

복숭아를 강판에 갈아 복숭아 물을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다면, 복숭아 통조림의 시럽을 사용해도 된다. 복숭아 통조림의 시럽을 열려 두었다가 함께 사용하면 더 오래 시원하고 달콤한 원소병을 즐길 수 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복숭아’

복숭아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신문지나 종이로 감싸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경우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먹기 1시간 전쯤 냉장고에 넣어 적당히 차게 한 후 먹는 것이 좋다. 복숭아는 숙취 해소, 피부 미백, 노화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먹었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금해야한다. 또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장어, 삼겹살 등 지방함량이 높은 음식과 먹으면 유기산이 지방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2026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개인분: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원]
- 사업소분: 기본세액 5~20만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해당
- *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자료 정비 후 신고납부안내문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부과 시 지방교육세(세율의 10%) 포함

납부기한

- 개인분: 2026. 8. 16.(일) ~ 8. 31.(월)
- 사업소분: 2026. 8. 1.(토) ~ 8. 31.(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방법

- 전화 ARS 납부 ☎142211
- 신용카드 결제·가상계좌 안내
-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고지서 납부 및 CD/ATM 이용 납부
- CD/ATM 이용 시 통장 및 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앱
- 스마트위택스 및 모바일지로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 납부
- 자동이체 납부(기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계좌에서 지정일에 이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방문·우편·FAX 신고(서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온라인신고: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신고사항 입력 → 인터넷 납부(전국 은행 CD/ATM 이용 납부 가능)

문의: 세무과 ☎ 041-840-8160

충남 AI디지털 배움터 ‘누구나 AI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강대상: 공주시민 누구나

신청방법: 방문접수 or 인터넷 접수(디지털배움터.kr)

교육장소: 공주종합사회복지관 2층 AI디지털배움터 교육장

교육정원: 16명 이내(선착순 접수)

문의: ☎ 1800-5762, 디지털배움터.kr

행복누리 평생학습관 가을학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수제떡 & 퓨전한과, 생활도자기공예, 감성피아노, 컴퓨터기초 등 100여 과정 / 1,000여 명

모집기간: 2026. 8. 5.(수) 10:00 ~ 8. 14.(금) 18:00

※ 지역민(공주시민, 공주시 소재 직장 및 학교) 우선접수

8. 5.(수) 10:00 ~ 8. 7.(금) 18:00

교육기간: 2026. 9. 8.(화) ~ 12. 20.(일) ※ 과정별 12주 이내

모집대상: 성인 ※ 공주시민 및 공주시 소재 직장인·재학생 우선 접수

수강료: 과정별 상이(18,000원 ~ 72,000원) / 교재비, 재료비 별도

수강료 면제: 학기별 1인 1과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교육장소: 공주시 행복누리 2~3층 평생학습관(의당로 21)

신청방법: 공주시 행복누리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https://www.gongju.go.kr/nurim>)

※ 1인 2과목 이내

문의: 평생학습진흥과 ☎ 041-840-8717, 8716



공주시 AI디지털배움터 ‘백제의 수도에서, 미래를 배우다’

교육대상: 공주시민(무료)

기간: 12월까지

거점센터 교육: 공주시 거점센터에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찾아가는 교육: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원하는 곳으로 직접 방문

기관·단체 맞춤형 교육: 기관·단체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

교육과정: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교육, 생성형 AI 활용, 사진·영상 제작,

ITQ 자격증, 디지털 생활

문의: ☎ 1800-5762, 디지털배움터.kr,

스마트정보과 ☎ 041-840-8941



체험관



수강신청

국립공주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자율전공학부 성인학습자전담과정(만학도)

인터넷 원서접수 : 2026. 9. 7.(월) 09:00 ~ 9. 11.(금) 18:00

최초합격자 발표 : 2026. 12. 18.(금) 18:00

충원합격자 발표 : 2026. 12. 24.(목) ~ 12. 29.(화) 18:00까지

※ 원서접수 전 최종 모집요강을 국립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람

입학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입학본부 ☎ 041-850-0111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



음주운전 집중단속 안내

☺️ 무더운 여름 피서철 안전한 여행을! ★★

01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02



한잔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범죄입니다

03



전날 과음 후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도 단속대상!

04



술자리 후 반드시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2026 공주시 도서관 책축제

도전! 독서골든벨

대상 : 전국 초등 3~6학년 70명

접수 : 2026. 8. 11.(화) ~ 9. 4.(금)

도서관 누리집 사전 접수(www.gongjulib.go.kr)

지정도서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초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김지훈	파란자전거	2023
잘못 뽑은 반장	이은재	주니어김영사	2009
바뀌!	박상기	비룡소	2018

일시 : 2026. 9. 12.(토) 16:30 ~ 17:30

장소 : 아트센터고마 야외무대 일원

문의 : 기적의 도서관 ☎ 041-840-8955



전자적 작가시점 : 당신의 글을 보여주세요

대상 : 사전 신청자 30명

내용 : 50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사전에 작성하여,

행사 당일 작가에게서 직접 첨삭받기

접수 : 2026. 8. 11.(화) ~ 9. 11.(금)

도서관 누리집 사전 접수(www.gongjulib.go.kr)



서점찍GO! 북스타그램로드

서점+왕도심명소 스탬프 투어

일시 : 2026. 6. 1.(월) ~ 10. 31.(토) (경품 선착순 마감)

참여장소

· 서점(9개소) :

가가책방, 느리게 책방, 봉황서림, e-문고, 중앙서림,
길담 서원, 여행책방 공주로, 책방잇다, 오래된질문

· 왕도심명소(4개소) :

꽃문학과, 옛공주읍사무소,
공주책공방북아트센터, 1967 호서극장

참여방법

- 위 장소 방문, 스탬프 4개 날인하기(서점 2개 이상 필수)

- QR 설문조사 & 스탬프 사진 업로드 필수

- 경품받기(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

문의 : 웅진도서관 ☎ 041-840-2205



마을해설사투어

일시 : 2026년 6월~10월 2, 4째주 토요일

14:00~15:30

신청 :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 폼 신청

※ 상기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웅진도서관 ☎ 041-840-2205





공주시 시민 기자

이종애(신관동)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 실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강화

공주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항공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상 여건으로 쌀 품질과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벼 도열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과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 등 주요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방제 면적은 총 3,000헥타르(ha)이며, 1차 방제는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으며 2차 방제는 8월 15일 전후로 나누어 실시한다. 방제에는 무인 헬기와 드론 등 무인 항공기가 투입된다.

항공 공동방제는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공동으로 약제를 살포해 방제 효과가 뛰어나며, 사람이 직접 살포할 때보다 약제의 확산이 적고 효과가 고르게 나타난다. 또한, 폭염 속에 장시간 농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번 방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이 적기에 병해충을 예방·방제할 수 있어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영순(반포면)



야호! 신나는 숲 속 사계절썰매장

금학생태공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여름에는 사계절썰매장이 운영되어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샤워실, 주차장, 시원한 냉방이 되어 있는 휴게실 등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변에는 목재체험장, 족욕장, 생태습지, 탐방로, 생태관찰 시설이 있으며 자연학습장 연못에는 연꽃이 만발해 눈까지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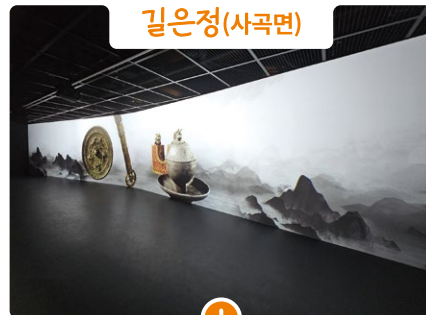
불거리, 줄길 거리, 추억거리, 건강 다지기 등 두루 즐길 수 있는 금학생태공원에서 무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보자.

곰나루어린이수영장과 사계절썰매장은 7월 17일 개장하여 8월 30일까지 운영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월요일과 오전 시 휴무다.

이용 요금은 곰나루어린이수영장은 무료이며, 사계절썰매장은 6,000원(16세 미만), 10,000원(16세 이상)이며 사이버 회원도 동일하다. 온누리공주시민은 50% 할인 된다. 이용시 아쿠아 슈즈, 벗겨지지 않는 샌들은 필수이다.

문의는 곰나루어린이수영장(041-840-8576), 사계절썰매장(041-840-8565)으로 하면 된다.

길은정(사곡면)



공주 백제문화전당에서 놀아요

공주 백제문화전당은 2026년 2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공연·체험·휴식이 있는 곳이다. 백제 1,500년 역사와 문화를 최첨단 디지털과 공연 콘텐츠로 현대적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다.

주요 시설인 비단뜰(상설 전시장)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는 ‘빛으로 잇는 시간, 백제’를 주제로 역사와 문화, 금강, 신화 등을 영상과 음향으로 체험할 수 있고, 고마홀(공연장)은 백제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과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으로 뮤지컬, 콘서트, 전통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며, 무릉공방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만들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이 외에도 아트숍에서는 백제를 주제로 한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 식사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주변에 공주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이 가까이에 있어서 함께 둘러보기에도 좋다.

7월 한달동안은 전시장과 공연장 재정비를 위해 휴관했고, 8월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 방문 전 문의(041-852-1327) 하고 출발 하길 바란다.

소식을 한눈에



한여름 더위를 잊는 곳.

계룡산 계곡 8월까지 한시적 개방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가까운 계룡산에서 가족과 함께 더위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탐방객 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립공원 내 일부 계곡의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에 개방되는 곳은 동학사, 동월계곡, 수통골, 갑사, 신원사 일원 등 계룡산을 대표하는 5개 구간이다. 동학사와 동월계곡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좋다. 갑사와 신원사 주변은 고즈넉한 사찰 풍경과 시원한 숲길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철 산책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다만 계곡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된 구간에서 손발을 담그는 정도만 허용되는 제한적 개방이다. 몸 전체를 담그거나 수영, 튜브 등 물놀이 도구 사용은 물론 취사, 음주, 야영, 흡연, 지정 구간 밖 출입도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장 안내문과 이용 수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가 내린 뒤에는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복한땀재능봉사단

독거 어르신을 위한 여름 침구 나눔

공주시자원봉사센터 행복한땀재능봉사단에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직접 만든 침구를 선물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행복한땀재능봉사단은 재봉기술을 가진 베테랑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전문봉사단으로 원단 선정부터 재단, 재봉, 마감질까지 모든 공정에 정성을 쏟아 고품질의 여름 이불과 베개 커버를 완성했다.

정성으로 제작된 여름 침구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 20가구에 봉사자들이 방문해 침구를 교체해 드리고 폭염 대비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침구를 전달받은 박 모(옥룡동) 어르신은 “날이 더워지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기분”이라며 “손수 만들어 준 정성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복한땀재능봉사단은 이번 여름침구 나눔에 이어 다가오는 겨울에도 직접 제작한 침구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온기를 나눌 예정이다.



공주시낭송가협회 정기공연

시(詩), 세상을 향기롭게

공주시낭송가협회 공연이 7월 2일 공주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17회째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시(詩), 세상을 향기롭게’란 명제로 이뤄졌다.

협회 고문인 나태주 시인은 축사를 통해 “시인은 시 낭송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며 “시 낭송가들이 독자와 시인 사이를 이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니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 말했다.

공연은 웰컴 시 낭송 부문에 시인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시작으로 류시화님의 ‘모란의 연’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공주 이야기로 엮은 역사와 함께하는 한시가 낭송됐다.

이어 시극으로 연출한 신미균의 시 ‘폭탄 돌리기’는 엄마의 부양책임을 자손들이 서로에게 미루는 현대 가족의 씁쓸한 모습을 ‘폭탄 돌리기 게임’에 비유하며 날카롭게 풍자해 보여줬다.



제10대 공주시의회 보훈공원 참배로 의정활동 시작



제10대 공주시의회 의원 12명은 임기 첫날인 1일 오전 보훈공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의원들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하는 분향을 하며 임기 첫발을 내딛는 결의를 다졌다.

참배를 마친 의원들은 “시민의 선택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0대 공주시의회, 첫 임시회 및 개원식 열려



공주시의회는 7월 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첫 임시회인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공주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이범수 의원, 부의장에 권경운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개원식은 의원선서, 의원윤리강령 낭독, 이범수 의장 개원사, 최원철 시장 축하, 도지사 축하메시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의원 가족과 공무원,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주시의회의 새 출발을 함께했다.

이범수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제10대 공주시의회에 바라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공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시민의 기대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개원사



• 공주시의회의장 •
이범수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제10대 공주시의회의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대 공주시의회의 문을 열며, 저는 의장으로서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는 주민등록인구 10만 선이 무너진 냉혹한 인구소멸의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10대 의회에 바라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장으로서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제10대 공주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민생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민생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상생으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는 충실하되,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건전한 견제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정책으로 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회는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의정토론회와 의원 연구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는 위기의 도시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지역소멸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10대 공주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시민의 기대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0대 공주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공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2026년 공주시의회 하반기 회기 운영 계획

월	회기	주요내용	비고
8월	제267회 임시회 08. 03. ~ 08. 12. (10일간)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2026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서 작성	을지연습 (08. 18. ~ 08. 21.)
8월 ~ 9월	제268회 임시회 08. 31. ~ 09. 11. (12일간)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추석 연휴 (09. 24. ~ 09. 27.)
9월 ~ 10월	제269회 정례회 09. 28. ~ 10. 27. (30일간)	- 조례안 및 2027년 출자·출연안 등 의안 심의 2026년 시정에 대한 질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정례회 백제문화제 (10. 03. ~ 10. 11.)
11월 ~ 12월	제270회 정례회 11. 20. ~ 12. 14. (25일간)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제2차 정례회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 명탄서원 세상 나들이 전시회 개최



유교아카데미 민체 및 문인화반 졸업 작품 40여점 전시

공주시의회(의장 이범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예술공간에서 “명탄서원 세상 나들이”를 주제로 유교아카데미 민체 및 문인화반 졸업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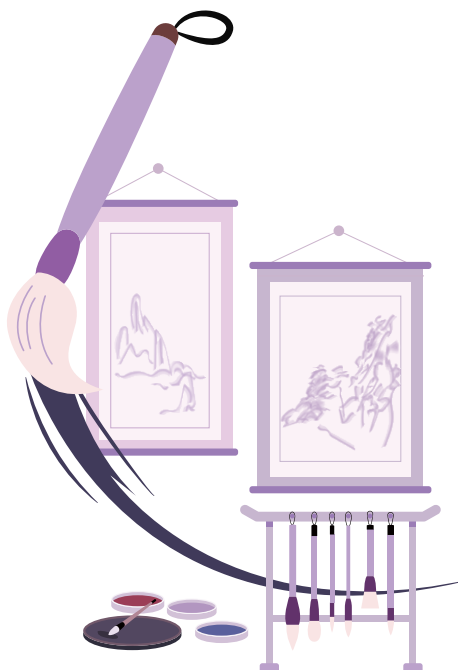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명탄서원에서 운영하는 토요인문학강좌를 통해 실력을 갈고닦은 수강생들의 졸업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 기간 동안 시민들은 수강생들이 정성 들여 완성한 민체 서예와 문인화 작품들을 감상하며, 인문학적 성취를 공유하고 미적 감성을 나누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탄서원 이운일 원장은 “유교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지난 시간 동안 쏟은 열정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공주시의회라는 뜻깊은 공간에서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전시가 서원의 인문학적 가치가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은 지난 2019년부터 의회 청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운영되어 왔으며, 매달 새로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의회와 시민’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 명소로 정착했다. 그동안 현대미술, 천연염색,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범수 의장은 “시민예술공간은 시민 누구나 예술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라며, “의회를 찾는 시민들이 문인화와 민체의 멋과 깊이를 함께 느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도, 여름과 가을을 잇다 **포도도 葡萄圖**

이계호 포도도(葡萄圖)

가로 36.4cm×세로 121.5cm

소장품번호 덕수 1327

8월의 포도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예고하듯 뜨거운 햇살을 머금고 탐스러운 진보랏빛 포도가 알알이 맺힌다.

포도넙쿨은 어린 시절 공주에서 자란 필자에게도 익숙한 여름의 풍경이다. 마당 한편에 드리운 넙쿨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고, 낮게 열린 포도는 아이들의 손길에 먼저 사라졌다.

높은 곳에 달린 포도는 아버지가 타고 어머니가 식탁에 올리며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름의 추억과 풍요를 상징하는 친숙한 기억이다.

포도는 고려청자의 문양과 조선시대 회화에 등장하며 오랫동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 왔다. 포도가 지닌 풍요와 다산의 상징성은 15세기 작가 미상의 '포도도'와 신사임당의 '포도도' 등 회화의 소재로도 자연



© e뮤지엄(국립중앙박물관)

스럽게 이어져 우리 미술 속에 뿌리내렸다.

조선 후기 포도도를 대표하는 휴당(休堂) 이계호(李繼祐)는 찰방(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생활로 공주 이인 지역과 인연을 맺은 화가이다.

72세 무렵 낙상으로 오른쪽 어깨를 다친 뒤에도 통증을 견디며 붓을 들었다는 일화를 떠올리면, 화면을 가득 채운 포도넝쿨의 동세가 더욱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이계호의 포도도는 8폭이 하나의 거대한 포도넝쿨처럼 연결되어 먹의 필력과 채색이 생동감 있게 조화를 이룬다. 포도알은 포도즙을 먹이나 다른 안료와 섞어 포도알의 음영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탐스럽게 익어 가는 생명력을 더하며 화면 전체에 풍성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한 송이에 많은 알맹이가 맺히는 포도의 특성은 가문의 번창과 대를 이을 자손이 많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도덩굴을 뜻하는 ‘만대(蔓帶)’가 오래 계속되는 ‘만대(萬代)’와 음이 같아 대대손손 가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장수를 상징한다.

이계호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포도는 다자다손(多子多孫)과 풍요를 전하고, 힘찬 붓놀림은 대대로 이어지는 생명력 넘치는 복의 의미를 담아낸다. 공주 이인에 머물렀던 그의 인연처럼, 오늘날에도 공주의 골목과 오래된 담장을 따라 드리운 포도넝쿨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계절의 풍요와 소망을 되새기게 한다.

기고 장지연 작가

은은한 알밤의 풍미와
강렬한 로코코 감성의 하모니
프렌치 디저트 카페

쉐마롱 Chez Marron



제민천 산책길은 담백하다. 낮은 담장의 옛집이 천변을 따라 이어지다가도 심표처럼 이색적인 건물이 등장한다. 오래 보아도 피로하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는 개성 있는 풍경은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옛 양옥집의 외피를 두르고 내부를 유럽의 색채로 가득 채운 ‘쉐마롱’도 제민천 산책길에 흥미를 더하는 장소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로코코 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눈앞에서 파티시에가 디저트를 만드는 모습은 절로 사진을 찍게 만든다.

‘쉐마롱’은 프랑스어로 ‘밤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름에 걸맞게 이곳의 대표메뉴는 ‘몽블랑’이다. 몽블랑은 차갑게 먹는 디저트의 한 종류로 국수 모양으로 짠 밤 크림을 사과 콩포트, 요거트 누가 글라세(아이스크림에 건과일, 과일 콩피 등을 넣고 열려 먹는 디저트), 이탈리아 머랭쿠키에 올려 만든다.

쉐마롱 대표는 제민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프랑스에서 제과를 전공한 후 공주에 카페를 열 때 지역 특산물 알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디저트를 선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메뉴가 몽블랑. 공주의 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서 무겁지 않고, 여러 번 먹고 싶은 디저트를 만들었다. 몽블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모든 밤을 ‘공주지역자활센터 알밤꿀밤사업단’에서 구매해 말 그대로 공주 알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디저트를 탄생시켰다.

몽블랑은 밤 함량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당분과 크림만 더해 밤 본연의 은은한 풍미를 살렸다. 한 수저 가득 몽블랑을 떠 입에 넣으면, 어릴 적 엄마가 삶은 밤을 으깨 꿀에 버무려주셨던 한 입의 맛이 느껴진다. 여기에 대표 음료 차트라뮤(태국밀크티)까지 함께 하면 은은하고 차가운 여름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 📍 주소 제민천3길 14
- 🕒 영업시간 목요일~일요일 12:00~21:00 월요일 12:00~20:00
※ 화요일, 수요일 휴무
- 🔥 대표메뉴 몽블랑, 차트라뮤
- ☎ 문의 0507-1321-9064 ※ 애견동반 가능

따뜻한 기부 소식

고향사랑 기부금 현황

2026년 6월 기부금 총액

11,800,000원 / 121명

2026년 누적
64,795,700원
670명

기부자 2026년 고액기부자

문은수

※ 기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오프라인 전국 NH농협 창구

기부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44%,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지역의 답례품 제공(고맏나루쌀, 공주밤, 알밤한우, 공주페이 등)

기금사업

- 고향에 계신 부모님(어르신) 이불빨래 대행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영구치 치료 지원사업

- 특별재난지역 재난시설 피해복구사업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7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현황

2026년 6월 기부금 총액(현금·현물)

26,936,350원 / 17건

현금

7,100,000원 / 6건

조○규, 더보양흑삼 삼계탕, 백강건설, (주)공간디자인,
공주중앙로타리클럽, 이○찬

현물

19,836,350원 / 11건

배고픈뎡밥이, 소로빵집, 옐로이즈, 투레주르 공주신관점, 백년추어탕,
본죽&비빔밥(월송점), 공주월송 진아래히,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주)하나그로, 농업법인회사 마이트리 주식회사, 3H지압침대 공주센터

복지정책과 041-840-8792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기부금 현황

2026년 6월 기부금 총액

3,024,020원 / 61건

2026년 1~6월 기부금 총액
11,738,180원

일반

2,640,000원 / 19건

개인 ※ 총 금액은 익명 기부를 포함합니다.

이재권, 나태주(2번), 최창원(2번), 김경미, 이용복, 김정섭, 박상현, 이 찬,
김학도, 오재경, 서건석, 임영미, 이지영, 신영각, (2건 익명)

법인 ※ 총 금액은 익명 기부를 포함합니다.

(주)하나그로

공무원

384,020원 / 42건

교육체육과 041-840-8643

온누리 공주시민 제도

온누리공주는 공주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공주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누리공주 P 를

검색하세요!



온누리공주시민 특별한 혜택

마일리지 공주페이 전환 또는 고맏나루장터 사용(정회원 가입 시 5,000 마일리지 적립)

할인쿠폰 쏘카 할인(대여요금 50% 할인 / 공주시 내 쏘카존 이용 시) - 온누리공주 쿠폰함 쿠폰번호 확인 → 쏘카 내쿠폰 쿠폰번호 등록

이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8 August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공주시문화회관 041-852-0858
공주기적의도서관 041-840-8955
아트센터고마 041-852-6035
바드챔버하우스 041-841-2224
공주문화예술촌 070-4415-9123



8.1(토) 15:00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 호수'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8.1(토) 19:00
살롱 오페라 푸치니 '라보엠'
바드챔버하우스 알프홀
*전석 초대 공연

1
8.1(토)~8.31(월)
그림책 원화 전시
'우주의 속삭임'
공주기적의도서관



7
8.7(금) 19:30
국립국악원 관현악 '축제'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9

8.9(일) 16:00
전원 속 인문학 교실-역사편
'중국 근대 역사와 사상'
강사 최성흠
바드챔버하우스 알프홀
*전석 초청 강연

~8.9(일)
공주문화예술촌 릴레이전
'임은지 개인전'
공주문화예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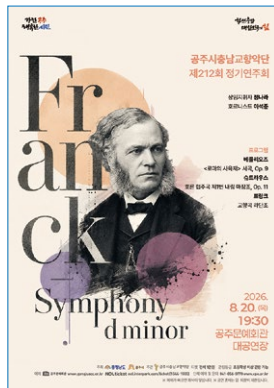
11

8.11(화)~8.23(일)
공주문화예술촌 릴레이전
'김규년 개인전'
공주문화예술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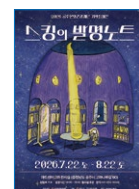
20

8.20(목) 19:30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제212회 정기연주회
'Franck, Symphony
d minor'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22

8.22(토) 17:00
'파게그니니 내한공연'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8.22(토)
2026 공주문화관광재단 기획
초대전 '스키의 발명노트'
아트센터고마
8.22(토) 17:00
공명 프로젝트 '첫 번째 울림'
핸드팬과 타악기
바드챔버하우스 알프홀
(전석 1만원)



25

8.25(화) 11:00
렉처콘서트 III
'라틴 클래식 음악'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



26

8.26(수) 19:00
우리동네 인문학 산책
'김경일의 마음트래킹'
공주기적의도서관



공연 및 전시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아이에게는 **창의력**을 어른에게는 **힐링**을 전하는 색칠 시간

공주에서 만드는 여름의 한 페이지

정성껏 색칠한 그림과 함께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민천의 풍경을 소개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다음 호 '흥미진진 공주'에 게재되며 마음을 담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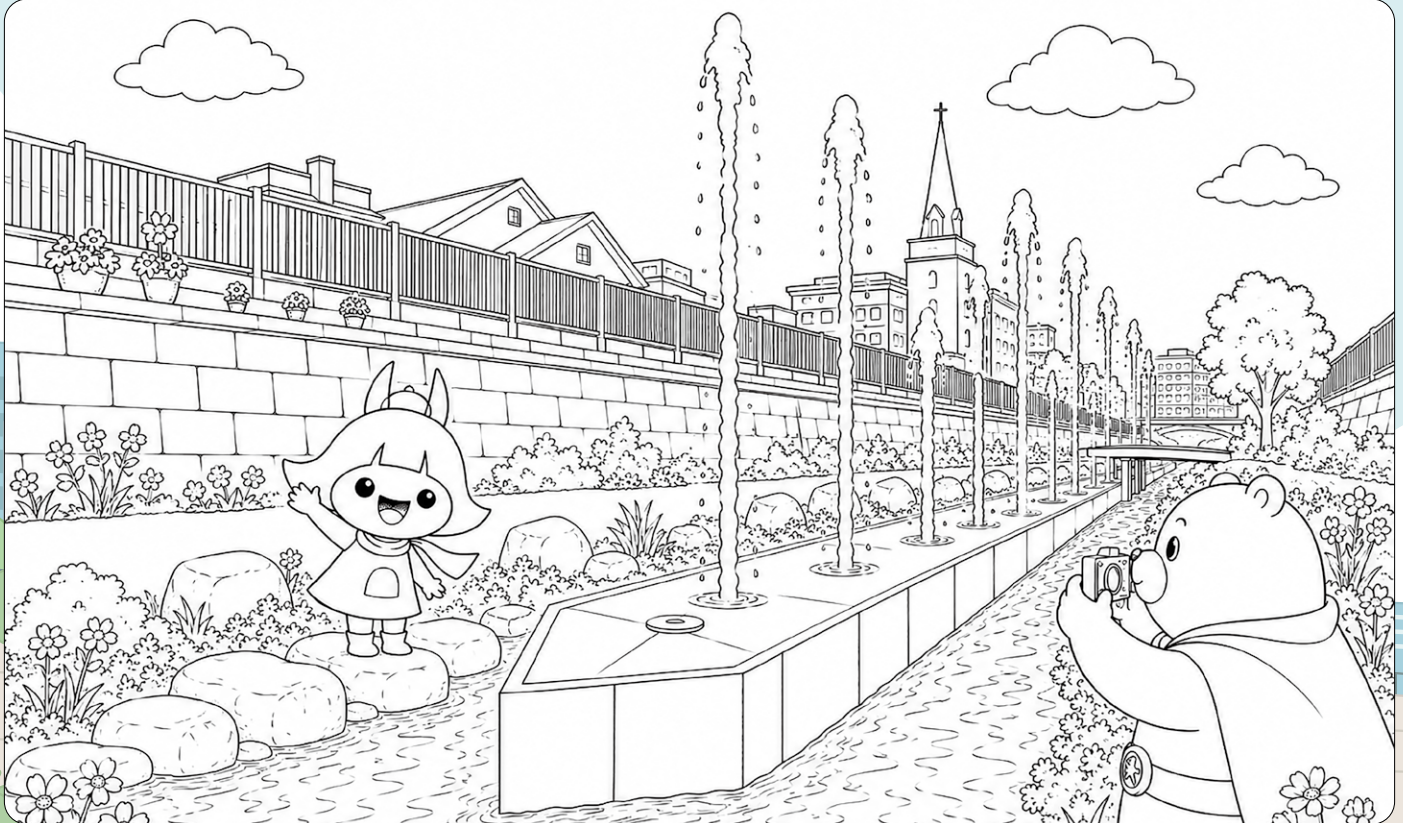
보내실 곳

dnc-hq04@naver.com

※ 메일 본문에 성함, 연락처, 거주지역(도시명), 사연을 함께 적어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상품 발송 및 당첨자 발표에 사용됩니다.

응모 기한

8월 10일(월)까지



공주말,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추억 속 공주말을 문제로 만나봅니다!

해당 문제는 '공주말사전'(이걸재 엮음)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Q. 다음 중 '누룽개'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1. 낫그릇
2. 누렁개
3. 누룽지
4. 무지개

Q. 다음 중 '시류'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1. 바람
2. 석류
3. 싫어요
4. 시름하다

Q. 내가 알고 있는 공주 사투리,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

※ [예시] 매시랍니다 -

저희 할머니가 즐겨 쓰시는 말이에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울 때' 이것 참 매시랍네~
라고 하신답니다.



제출 기한

8월 10일(월)까지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
거주 지역(도시명)을 함께 적어주세요.

제2회 공주^야夜^밤밤 맥주축제

2026. 8. 14.(금) - 16.(일) 19:00 ~
공주 금강신관공원 일원

DAY 1

김징훈

윤도현밴드

DAY 2

COOL 이재훈

멜로밍스

DAY 3

DJ DOC

10CM